

2025 한국교회 '10대 뉴스'... 선교 140주년·AI와 목회 등

'기독일보'가 돌아본 2025년 한국교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약 1년 동안에도 한국교회에는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다. 기독일보는 올해를 정리하며 '2025 기독교 10대 뉴스'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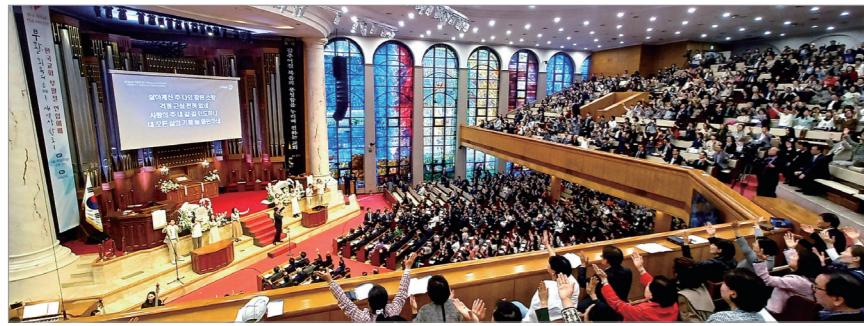
기독일보 편집부

결정했으며, 얼마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들어선 특검은 이영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현장. ©뉴스데스크

1.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



2025 한교총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 한국교회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1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로 드려졌으며, 선교사들이 처음 밟았을 때의 문화·예술·종교·사회·정치·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와 변화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 올해도 부결된 '목회자 정년 연장'



지난 9월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는 수년간 교단 정기총회 '뜨거운 감자'였다. 예장 합동은 올해도 연장안을 부결하고 '만 70세'를 유지했다. "후배 목회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을 실렸다. 예장 백석 교류를 위한 선교연합체는 통합이든 백

석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사실상 정년을 없애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가 논란이 되자 '현행 75세 그대로 유지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예장 고신도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3. 시국 관련 '국가비상기도회' 및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어난 정치적 금번 사태는 교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이는 찬반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대표적 탄핵 반대 집회였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금은 구속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주도했다. 현법재판소는 결국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찬반 집회로

4. 기하성-예장 백석 통합 논의

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예장 백석(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 간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교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각각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 전통 위에 있는 두 교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슈였다. 다만 기하성은 최근 "우리 교단과 백석 교단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교적 교류를 위한 선교연합체는 통합이든 백



과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의 이영훈 목사(오른쪽)와 장종현 목사. ©기독일보 DB

석 교단과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5. 교회와 목회 속으로 깊이 들어온 AI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교회와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AI는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도구이자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일부 교단에선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큰 논쟁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를 설교 작성에 과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과 예화 검색 등에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신앙의 본질



AI 관련 기독교 서적들. ©최승연 기자

을 훠손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6. 세상 떠나 하나님 품으로

원로 목회자와 교계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다. 김준곤 목사의 부인이 전효심 사모, JAMA 설립자인 김준근 박사, 아신대 선교대학원 소운정 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원로목사, 미국의 대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맥아더 목사, 신경하 전 감독회장, 김삼봉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



故 박중식 원로목사 영정 사진. ©새중앙교회

목사 등이 별세했다.

7. 대형교회 리더십 교체

지구촌교회가 지난 4월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으로 청빙했다. 당시 교회 사무총회에서 성도 97.6%가 그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 목사는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가 목회철학이라고 밝혔다. 지구촌교회는 "김 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을하겠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도 사랑의빛선교 교회 윤대혁 목사(51)를 제3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최근 만장일치 결의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윤 목사는 추후 제직회,



지구촌교회 제4대 담임인 김우준 목사(왼쪽)와 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으로 청빙된 윤대혁 목사(오른쪽). ©기독일보 DB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이 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 여러 대형교회들이 차기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다.

8. 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일보 DB

정부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하자,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핵심 주장은 부처 명칭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이외 제3의 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결국 국회에서 막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포석일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끝내 출범했다.

9.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축소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2008년 이후 변화된 대학 현황을 반영한다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교계 반발을 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21개 지정 법인을 11개(대학 6곳, 대학원대학 5곳)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었다. 종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기존 명단에서 대거 제외돼 파장이 커졌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주요 교단은 즉각 성명을 발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계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는 결국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0.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교회 피해 및 구호

지난 3월 경북 의성과 안동, 영덕을 비롯해 경남 산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남겼다. 해당 지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당과 목회자의 사택이 불에 타는 등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아픔의 현장에서

교회의 사랑 실천도 빛을 발했다. 구세군과 한국교회봉사단 등은 이재민과 소방당원들에게 매일 수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벌였다.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구호기금 모금도 진행됐다.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술성 페인트



도어락/손잡이



라텍스 장갑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